A-04

관찰·추천 방식에 의한 초등과학 영재선발에서 교사들의 평가결과 탐색 -영재캠프를 중심으로-

문병찬 · 김해경 · 송진여*
(광주교육대학교 · 수문초등학교*)

초등 영재교육에 있어서 교육프로그램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영재성을 잠재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의 고안과 신뢰성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이다. 지금까지 영재선발을 위한 문제해결력 및 창의성의 지필평가방식이 사회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결과를 토대로 추천하는 선발방식이 제안되었다. 이에 2011년 부터는 교사들에 의한 관찰·추천방식을 우리나라의 영재선발에 적용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2009년 하반기부터 16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사 관찰·추천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미 부분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거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적용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행중이다. 현재 모든 과정을 관찰·추천제의 방식으로 영재를 선발하자는 국가차원의 주장과 일부 선발과정에서 영재교육기관인 대학 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자는 의견들이 있으며 이중 영재캠프를 통해 지원자들의 탐구능력을 관찰하는 과정을 영재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참여하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 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재선발을 위한 영재캠프에서 실제로 영재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을 참여시켜 학생들이 탐구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교사들은 학생들의 행동적 특성을 관찰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관찰평가를 담당하는 교사 1명당 5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으며, 담당교사는 해당학생들이 4개의 탐구문제를 해결하는 전과정을 관찰하고 관찰결과를 서술한 뒤 이를 근거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영재캠프가 진행된 1박2일의 과정이 모두 끝난 후, 교사들이 평가한 결과지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여 영재캠프가 영재선발도구로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 관찰평가에 참여한 8명의 교사들이 소수의 담당학생들의 탐구과정에

서 나타나는 행동적 특성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서술한 뒤 이를 근거로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방법이 선발을 위한 평가로서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었으나 교사들에 의해 서술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교사들의 주관적 판단이 우세하여 평가도구로서의 신뢰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 교사에 의해 평가된 5명의 행동특성의 서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관찰항목의 일관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용된 용어 및 표현 등에서도 평가로서의 객관성, 전문성, 일관성이 미흡하였다.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교사들에 의해 서술된 내용이나 평가결과를 비교 분석해 볼 때, 영재선발을 위한 도구로서 학부모나 해당학생들이 모두 수긍할 만한 수준의 신뢰성은 다소 부족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찰·추천 방식에 의한 초등과학 영재선발에서 영재캠프를 적용하는데 정량적 평가도구로서 신뢰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교사들의 관찰방법과 서술방식 대한 구체적인 도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교신저자 문병찬(mbc@gnue.ac.kr)